

구약논찬

제14권 4호(통권 30집) 2008년 12월 31일

하 경택(서울장신대) '창조와 종말' 주제를 위한 동물의 신학적 의미(意義)
창조의 주제를 다루는 본문들(창 1장; 시 104편; 욥 38 - 41장; 사 11장)은 '창조'가 단순히 '세계창조'나 '우주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고 '창조세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통치'를 의미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물/동물세계는 인간 존재를 위한 수단이나 악세사리가 아니라 인간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작용한다.

Ha, Kyung-Taek

Theological Significance of Animals for the Theme 'Creation and Eschatology'

‘창조와 종말’ 주제를 위한 동물의 신학적 의의(意義)¹⁾

하 경택 | 서울장신대

1. 들어가는 말

구약성서 신학은 폰 라트(G. von Rad) 이전과 이후를 나눌 만큼 폰 라트의 영향이 지대하였다. 폰 라트는 자신의 주저인 「구약성서신학I/II」을 통해 구약 성서는 ‘기본적으로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 행위에 관심을 갖는 역사서’라는 평가와 함께 구약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신앙의 역사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구약 성서의 기본적 내용은 ‘구원사’(Heilsgeschichte)이므로 ‘다시 들려주는 일’(Nacherzählung)이 구약 성서 신학의 핵심적 과제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폰 라트 구약 신학의 특성은 ‘창조 신앙’도 거룩한 역사의 파생물이라고 말하며 구원사 신앙에 포함시키려 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역사 중심적인 구약 신학은 베스터만(C. Westermann) 이후 창조 주제에 대한 관심의 대두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²⁾ 베스터만은

1)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27-A00272).

2) 참조. C. Westermann, *Der Segen in der Bibel und im Handeln der Kirche*, (München:

하나님의 '구원 행위'(Gott als Retter)와 대비되는 행동 양식으로서 하나님의 '축복 행위'(Gott als Segnender)를 강조했다. 구원 행위는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현재적 행위들을 통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반면, 축복 행위는 항시적인 행위로서 생명과 성장과 번성을 촉진시키고, 창조를 위협과 손상으로부터 보존하는 힘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창조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제 2이사야의 빛 아래에서 구원론과 결부시키려는 시도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관한 전승과는 구별되는 창조 전승의 성격을 강조하였다.

그 후 크뤼제만(F. Crüsemann)³⁾과 쟁어(E. Zenger)⁴⁾는 창 1 - 11장에 나타난 원 역사의 독자적인 성격을 강조하였고, 역사 중심적인 구약 신학에서 '창조'를 구약 신학의 독립적인 주제로 부각시켰다. 심지어 슈미트(H. H. Schmidt)는 창조 신앙 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 질서를 보존하신다는 신앙은 구약 성서 신학의 주변적인 주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본적인 주제라고까지 주장하였다.⁵⁾ 왜냐하면 성서가 창조의 주제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의 축제는 본질적으로 자연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약 성서 신학 안에서 전개된 이러한 변화는 구약 신학의 중심 또는 관심 주제가 '역사'에서 '창조'로 이동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그 의미가 올바르게 평가될 수 없다. 이러한 구약 성서 신학에 대한 평가에는 인간 중심적인 구약 신학에서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구약 신학으로 그 관심과 대상이 더 넓혀졌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70년대 이후

Kaiser, 1992). 또한 그의 구약신학 입장을 정리한 다음 책을 보라: 동 저자, 「구약신학의 요소들」 (박 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 3) F. Crüsemann, "Die Eigenständigkeit der Urgeschichte. Ein Beitrag zur Diskussion um den 'Jahwisten'," J. Jeremias/L. Perliitt (Hg.), *Die Botschaft und die Boten*. Festschrift für H. W. Wolff zum 70. Geburtstag,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1), 11-29쪽.
- 4) E. Zenger, "Beobachtungen zur Komposition und Theologie der jahwistischen Urgeschichte," ders (Hg.), *Dynamik im Wort. Lehre von der Bibel - Leben aus der Bibel* (Katholischen Bibelwerk), FS aus Anlaß des 50-jährigen Bestehens des Katholischen Bibelwerks in Deutschland (1933-1983), (Stuttgart: Verl. Kath. Bibelwerk, 1983), 35-54쪽.
- 5) H. H. Schmidt, *Gerechtigkeit als Weltordnung. Hintergrund und Geschichte der alttestamentlichen Gerechtigkeitsbegriffes* (Beiträge zur historischen Theologie 40), (Tübingen: Mohr Siebeck, 1968). 또한 자신의 개념 중심의 탐구들로부터 신학적 결론들을 이끌어 내었던 일련의 글들을 모아 놓은 그의 논문집을 참조하라: 동 저자, *Altorientalische Welt in de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Zürich: Theolog. Verl., 1974).

산업 사회가 가져온 자연 파괴와 인간적인 삶의 상실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집중된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러한 신학적 관심 주제의 동향은 조직 신학 분야에서도 비슷하게 고찰된다.

조직 신학에서는 창조와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이 생태계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표출되었다. 생태계 신학은 생태계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1980년대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였다.⁶⁾ 생태계 신학의 특징은 인간 중심적인 신학에 대한 비판으로 파악된다. 그전까지 서구 신학은 대체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집중해 왔다. 즉 그것은 주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인간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구속 신학이었다. 그러나 생태계 신학은 그 동안의 신학이 지나치게 인간 중심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신학의 대상을 인간에서 세계 전체로 옮기고자 하며, 이 점에서 전통적인 구속 중심의 신학에서 벗어나 창조 중심의 신학을 전개한다. 자연을 살아 숨쉬는 하나의 통일된 생명체로 이해하며, 무지비한 약탈이나 남용으로부터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대상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창조와 창조 신학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페러다임의 전환’이라 부를 만큼 중요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동물 세계는 구약 신학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서구에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국내에서는 심층적인 접근이나 독립적인 주제로서 다루어진 문헌이 없을 만큼 동물 세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다. 그러나 구약 성서의 주요 본문에 나타난 동물 세계에 대한 묘사가 보여주는 신학적 함의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다.

본 논문에서는 ‘창조와 종말’ 두 주제 가운데 우선적으로 ‘창조의 주제와 관련된 본문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특별히 필자가 선정한 본문들(창 1: 1 - 2: 4a; 시 104편; 욥 38 - 41장)은 단순히 ‘세계 창조’나 ‘우주의 시작’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통치’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 이 주제는 우주의 시작이나 기원 등에 관한

6) 박 만, 「현대신학이야기」, (서울: 살림, 2004), 85쪽. 생태계신학에 관한 일반적인 소개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김 균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호남신학대학교, 「생태학과 기독교 신학의 미래」, (서울: 한들출판사, 1999).

질문을 뛰어 넘어 오늘 이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바로 이러한 본문들에서 동물 세계에 대한 언급이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조’ 주제가 다루어진 구약성서의 본문들에 대한 주석적 연구를 통해서 동물 세계가 보여주는 상징성을 규명하고, 구약 성서 신학에 미치는 동물 세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자 한다.

2. ‘창조’와 동물 세계

1) 창 1장 1절 - 2장 4a절

(1) 예비 고찰

창 1장의 범위는 내용에 따라 더 정확히 말하면 창 2장 4a절(혹은 3절)에 이른다. 이 본문은 흔히 제사(P)문서로 분류된다. 창조에 대한 첫 번째 기사인 창 1장 1절 - 2장 4a절은 원 역사인 창 1 - 11장, 또는 창세기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내용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1) 표제어: 창조의 선언적 서언(창 1: 1)
- 2) 창조 서술(창 1: 2 - 2: 3)
- 3) 결론(창 2: 4a)

창조의 서술은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창 1: 2), 6일 동안의 창조(창 1: 3-31), 창조의 완성과 축복(창 2: 1-3)으로 세분된다.⁷⁾ 창조 이전의 상태는 땅을 주어로 하는 창조 이전의 땅의 상태에 대한 묘사(창 1: 2a)와 하나님의 신을 주어로 하는 창조 이전의 상태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된다(창 1: 2b).

6일 동안의 창조는 창조의 말씀(“하나님께서 이르시되”)과 창조의 맺음말(“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00째 날이니라”)을 틀로 하는 6개의 단락(창 1: 3-5, 6-8, 9-13, 14-19, 20-23, 24-31)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7) 왕 대일은 창조 이전(1: 2)과 창조 이후(2: 1-3)의 대칭적 구조를 통해 창조 사건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것은 “혼돈과 공허의 땅”에서 “군대”(sābā)처럼 조직과 질서를 갖춘 세상으로 바뀐 것이요,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가 아니라 ‘혼돈으로부터 질서의 창조’(creatio ex chaos)임이 잘 드러난다는 것이다. 참조, 왕 대일, 「구약신학」, (서울: 도서출판성서학연구소, 2002), 368쪽.

도 “그대로 되니라”(창 1: 3, 7, 9, 11, 15, 24, 30)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 1: 4, 12, 18, 21, 25, 27)와 같은 표현도 반복된다. 이러한 반복과 더불어 각 날의 창조에 관한 묘사는 기본적으로 ‘창조의 말씀’(창 1: 3a, 6, 9, 11, 14, 20, 24, 26), ‘창조의 행동’(창 1: 4b, 7, 16-18, 21, 25a), ‘창조의 평가’(창 1: 4a, 12b, 18b, 21bβ, 25b, 31a), ‘창조의 맺음말’(창 1: 5b, 8b, 13, 19, 23, 31b)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1-3일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피조된 것이 구분되었음을 강조한다.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했고, 그 후에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창 1: 4). 둘째 날에는 궁창이 창조되었고, 그 후에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다(창 1: 6-7). 셋째 날에는 땅과 물이 구분되었다(창 1: 9). 그러므로 1-3일의 창조에 대한 기사에는 이전에 함께 섞여 있었던 것들(빛과 어둠, 궁창 위와 아래의 물, 땅과 물)이 각각 분리되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반면에 4-6일의 창조에 대한 기사는 1-3일에 나뉘었던 각 영역이 피조물로 채워지는 것을 기술한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셨던 빛을 해, 달, 별들로 채우셨다(창 1: 14).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구분하였던 궁창 위와 궁창 아래를 새와 물고기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다(창 1: 20, 22).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구분하여 드러난 땅을 동물들과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셨다(창 1: 28).

창조의 완성과 축복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는 설명(창 2: 2)과,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설명(창 2: 3)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창 2: 4a의 “이것들은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의 내력이다”는 언급을 통해서 창조 기사가 인클루시오(inclusio)의 구조로 종결된다.

(2) 동물의 신학적 의의에 대한 고찰

① 하나님의 주권과 유일성 강조

창 1장의 창조 기사에서 드러나는 분명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과 여타 나머지 존재들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다. 창조주 하나님(엘로힘)의 주권과 유일성에 대한 강조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찰된다.

첫째로 ‘혼돈 세력과의 투쟁’ 모티브가 창조 활동에 적용되고 있다. 고대 중동에서는 창조주는 혼돈 세력과 실제적인 싸움을 벌인다.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창조 세계가 질서를 갖게 된다. 그러나 창 1장에서는 혼돈의 세력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통제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제어되고 구속(拘縮)되는 피조 세계의 일부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야 하고, 한 곳에 모이라 할 때 그곳으로 모여 바다를 이루어야 했다.⁸⁾ 창조주의 이러한 절대적 명령에 거역하거나 대항할 그 어떤 세력이나 권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로, 구약 성서에서 원시 바다 괴물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되는 '탄닌'(tannin)의 위치에 대한 문제이다. '탄닌'은 리위야단(*liwjatān*), 라합(*rahab*), 베헤못(*b^ehemôt*), 암(*ām*) 등과 함께 구약 성서에서 원시 바다 괴물로 지칭된다. 그러한 '탄닌'이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다(창 1: 21). 그것들이 생물 중에서 차지하는 특별한 위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들이 "그들의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방식으로 그것들은 "비(非)-동물들"(Un-Tiere; 괴물)로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파괴적인 힘을 가진 혼돈의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위협적인 존재로서 나타나는 그것들이 창 1장의 창조 기사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 기준을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선 고대 중동의 주변 나라들에서는 창조신에 대한 세력으로 인식되던 원시 바다 괴물이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탄닌'은 피조물 중 하나일 뿐이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한다거나 신적인 존재로서 사람에게 숭배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로써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유일성이 분명하게 강조된다.

8) 이러한 "혼돈과의 투쟁"의 모티브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통제"의 모티브가 이 외에도 욥 38장 5절 이하들과 시편 104편 7절 이하, 그리고 시편 148편 6절이나 잠언 8장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조. 강 성열, 「고대근동세계와 이스라엘 종교」 (서울: 한울, 2003), 31-36쪽. "혼돈과의 투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대 중동의 창조 개념은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출애굽 사건에 적용된다(참조. 강 성열, 「고대근동세계와 이스라엘 종교」, 36쪽). 또한 구약성서에서 이방 세력이 혼돈의 괴물로 상징화되어 표현되거나(참조. 강 성열, 「고대근동세계와 이스라엘 종교」, 43-45쪽), 특히 묵시문학에서는 혼돈의 괴물이 악의 세력의 총칭으로서 나타난다(참조. 강 성열, 「고대근동세계와 이스라엘 종교」, 50쪽).

② 만물의 영장(永狀)으로서 창조된 ‘사람’

창 1장의 서술에서 인간의 창조는 창조 사역의 정점으로서 나타난다.⁹⁾ 단순히 여섯 째 날 마지막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뿐 아니라, 그 기술의 복잡성 속에서도 인간 창조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제 6일의 창조에서는 처음에 내리신 명령(“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창 1: 24) 외에도 “사람을 만들자”라는 하나님의 결심(창 1: 26), 사람에게 내리시는 축복(창 1: 28), 동물과 사람에게 식물을 먹을거리로 주겠다고 다짐하시는 약속(창 1: 29-30a)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제 6일의 창조에는 창조의 명령,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양식의 말씀이 동시에 개진되고 있다.¹⁰⁾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 내용을 보면 그 특이성이 분명하게 고찰된다. 동물에게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나 동물에 대한 축복과 다른 점은, 인간에게는 “모든 생물/동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추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 창조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 자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임무가 주목된다.¹¹⁾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었으나 ‘모든 생물/동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이 명령에는 인간의 문화와 문명의 역사가 전제되어 있다.¹²⁾ 역사적으로 보면 이 구절이 자연 착취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교리인 ‘dominium terrae’(“땅을 정복하라 kbs”)의 근거가 된 것은 사실이다.¹³⁾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을 통해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9) 참조, 강 성열, 「고대근동세계와 이스라엘 종교」, 29-30쪽.

10) 왕 대일, 「구약신학」, 373쪽.

11) 이러한 구약성서의 인간 이해는 이스라엘 주변 세계의 창조 신화와 비교할 때 그 독특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수메르나 바벨론의 문헌에 나타나는 인간 창조는 이전에 신들이 하던 노동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행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신을 ‘대신하여’ 노동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예컨대 바벨론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리쉬>를 보라: J. B. Prit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AN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9), 68쪽(서판 IV 6-8행); 장 일선, 「구약세계의 문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331쪽. 이외에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고대 중동 문헌에 나타난 창조 기사와의 대비점들에 관하여 참조, 덤브렐, 220-221쪽.

12) 참조, H. Gunkel,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77), 113쪽.

13) 강 사문은 “땅을 정복하라”에 사용된 <카바쉬>도 “땅을 가꾸어라”로 번역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정되고 있다. 특히 “다스리라”로 번역된 히브리 동사 *rādāh*의 의미를 “짓밟다”라는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아 무력적 지배의 근거를 제공하였던 종래의 견해가 반박되고,¹⁴⁾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¹⁵⁾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인간의 ‘다스림’은 일방적인 착취나 남용이 아니라 선한 목자와 왕으로서의 다스림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동물을 창조 질서에 부합하도록 다스려야 한다(참조. 시 8: 6). 그러한 의미에서 동물은 단순히 인간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나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목적인 바를 이루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로서 동물을 다스리는 인간(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관련성을 갖는다. 바울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완성된 모습을 그리스도가 보여 주었다고 증언한다(골 1: 15; 고후 4: 4; 또한 참조. 롬 8: 29; 고후 3: 18; 골 3: 10).¹⁶⁾ 창 2장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창 1장에서 언명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실제적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위임하신 경작과 보존의 사명에 맞추어(창 2: 8; 15) 이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창 2: 19이하).¹⁷⁾ 그러므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 창조의 의미와 내용은 인간이 창조 목적에 맞게 동물을 잘 다스리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참조 강 사문, 「구약의 자연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99쪽.

14) *rādāh* <라다> 동사의 의미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 8: 6의 *m'sal* <마살>과 대응된다(참조. 시 68: 28[27]; 시 49: 15[14]). <라다>에는 ‘밟다’는 뜻이 있으나(욥 4: 13 [3: 13]), 아헨가 세우신 이스라엘 왕의 통치(시 72: 8; 110: 2)나 메시아적인 통치를 의미한다(사 41: 2). ThWAT *rādāh* 항목 참조.

15) 참조. E. Zenger, *Gottes Bogen in den Wolken: Untersuchung zu Komposition und Theologie der priesterschriftlichen Urgeschichte* (Stuttgart: Verlag Kath. Bibelwerk, 1987), 91쪽; N. Lohfink, “Macht euch die Erde untertan?,” in: 동저자, *Studien zum Pentateuch* (Stuttgart: Verlag Kath. Bibelwerk, 1974/1988), 11-28쪽; K. Koch, “Gestaltet die Erde, doch heget das Leben! Einige Klarstellungen zum dominium terrae in Gen 1,” in: 동저자, *Spuren des hebräischen Denkens: Beiträge zur alttestamentlichen Theologie*, Gesammelte Aufsätze Band 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3/1991), 223-237쪽.

16) 참조. W. 덤브렐, 「새 언약과 새 창조」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236-239쪽. 인간(아담)과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은 시편 8편에 대한 이해에서도 드러난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아래 두셨다”는 진술을 히 2장 4-6절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술로 받아들인다. 일반적인 인간에게 적용되던 만물 통치권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17) 참조. W. 덤브렐, 225쪽.

③ 동물의 먹이에 관한 질문

창 1장의 창조 기사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동물의 신학적 의의는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물의 먹을거리에 관한 문제에서 드러난다. 하나님께서는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들에게 축복하신다(창 1: 28). 그리고 인간과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에 대해서 명령하신다: '온 지면의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시며, 그것들이 인간의 양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창 1: 29). 뒤 이어 동물들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허락하신다고 말한다(창 1: 30). 즉 생존을 위해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에 의한 피 흘림이 진행되지 않는 세계를 의도하고 계신 것이다. 동물을 죽여서 먹는 것을 허락한 것은 창 9장 2-3절에서 보듯이 본래부터 악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인류에 대한 양보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사 11장 6-9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평화의 나라는 창 1장의 하나님 명령과 밀접한 연관성을 볼 수 있다.

메시아적인 통치자의 활동 결과로서 보여주는 평화의 세계는 그의 통치의 목표로서 나타난다. 이 세계에 대한 묘사에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평화뿐 아니라, 동물과 동물 사이의 평화가 그려진다. 이때 각각의 동물들에 대한 역할과 관계에서 드러나는 독특성들이 고찰되어야 한다. 양이 이리에게 친절을 베풀며 표범이 어린 염소에게서 쉴 곳을 찾는다. 야생 동물들이 길들여진 동물과 함께 친분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동물들이 어린아이에 의해서 인도된다.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대조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역전 현상은 젓먹이 아이와 젓을 뺀 아이가 독사나, 소처럼 풀 먹는 사자들과 노는 데에서도 목격된다. 여기에서 인간과 동물이 서로 동반자로서 기능하고 있는 최초의 창조 세계(창 1 - 2장)와의 관계성이 고찰된다. 땅과 동물에 대한 인간의 통치는 피 흘림 없이 수행된다. 인간이나 동물 모두 식물만을 먹을거리로 허락되었기 때문이다(창 1: 29-30). 그러므로 6-8절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들(또한 참조. 사 65: 25; 호 2: 20[18])은 처음 창조된 세계의 상태로의 복귀에 대한 희망을 보여준다.

2) 시 104편

(1) 예비 고찰

이 시편은 개인 찬송시에 속한다. 1인칭 개인의 음성이 1절, 33절, 35절에서 강조된다. 이 찬송시의 주제는 야훼의 창조다.¹⁸⁾ 형식적인 면에서 고찰해 볼 때도 찬송시적인 분사 구문 양식이 특징을 이룬다.¹⁹⁾ 시 104편은 다음과 같이 단락을 나눌 수 있다:

- 1) 지존하신 창조주에 대한 묘사(시 104: 1-9)
- 2) 생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시 104: 10-23)
- 3) 하나님의 창조 사역(시 104: 24-30)
- 4)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서원과 초청(시 104: 31-35).

첫 번째 단락에서 지존하신 창조주가 고대 중동에 잘 알려진 신화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서 묘사된다. 주께서는 빛을 입으신(시 104: 2a) 왕이신 하나님이다(시 104: 1b). 주께서는 당신의 궁정을 물 위에 세우시고(시 104: 2b, 3a), 폭풍우를 병거 삼아 진격하시며(시 104: 3bc), 바람과 번개로 사역자를 삼으시고(시 104: 4), 태고의 바다를 정복하시어 땅을 세우시고, 땅을 덮었던(시 104: 6) 바다를 물리치셨다(시 104: 5, 7). 그리하여 산들과 골짜기들이 모습을 드러내고(시 104: 8), 바다는 한 곳에 모여 다시는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시 104: 9). 이러한 묘사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과 ‘이 땅은 견고하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이 세상은 혼돈의 바다로부터 분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생물들을 돌보시는지가 묘사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중복되기도 하는데, 물(시 104: 10-11, 13, 16), 음식(시 104: 10-15절, 27), 보금자리(시 104: 12, 17-18), 시간(시 104: 19-23) 등으로

18) 시편 104편에 관한 연구는 다음의 책들을 참조하라: C. Westermann, *Ausgewählt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H. Spieckermann, *Heilsgegenwart. Eine Theologie des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H.-J. Kraus, *Psalmen 60-150* (BK 15/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A. 바이저, 「시편 2」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예슬리 알렌, 「시편 101-150」 (WBC 성경주석), 서울: 솔로몬, 2001; 제임스 L. 메이스, 「시편」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E. Zenger & F.-L. Hossfeld, *Psalmen 51-100* (HThKAT), Freiburg u.a.: Herder, 2000.

19) 분사구문 양식에 관하여 참조: M. 드라이차 외 공저, 「구약성서 연구 방법론: 주석 방법론 입문서」, 하 경택 옮김, 서울: 비블리카 아카데미아 2005, 120쪽.

나누어 고찰된다. 이것들은 모두가 생물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며 좋은 것들로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피조물들을 위해 만드신 것이다. 이러한 묘사는 생물체들이 어디에서 서식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은 상호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태계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 단락에서는 앞 부분에 대한 요약과 함께 생물체들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생물들을 그 지혜로 지으셨는지에 대한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시 104: 24). 시 1-4편 10-23절에 기록된 생물들의 목록은 시작에 불과하다. 강조점이 '모든'(kullām)이란 표현에 놓여 있다.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 시편 기자는 선척이 다니는 넓은 바다에 사는 생물들, 즉 리위야단(liujātān)을 포함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언급한다(시 104: 25-26). 리위야단은 창 1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원시 바다 피물에 대한 명칭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모든 생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시편 기자의 의도로 엿보인다. 둘째로 이 단락에서 강조되는 점은 모든 생물들이 그들이 먹이(시 104: 27-28)는 물론 생명 자체까지(시 104: 29-30)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생물들이 경험하는 먹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뿐 아니라 모든 생물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일련의 소망과 서원이 나열되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 찬송 시에서 묘사된 하나님께 응답하며 자신을 헌신한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소망한다(시 104: 31). 또한 창조주께서 자신의 작품에서 즐거워하기를 바란다. 야훼의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시 104편 32절에서 암시된다. 시편 기자는 평생의 찬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시 104: 33-34). 모든 악인의 소멸에 대한 요청은 시 전체의 내용으로부터 이해될 수 있다(시 104: 35). 하나님을 떠나 그를 찬양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질서와 하나님께 귀속된 종속의 넓은 나라에서 있을 자리가 없다. 따라서 악인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 죄는 하나님께 열려 있는 창조에서 그 자리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새 창조,

즉 죄와 잘못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이 빛난다.

(2) 동물의 신학적 의의에 대한 고찰

시 104편에서도 동물의 신학적 의의에 대하여 두 가지 차원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로 창조 세계에서 리위야단(*liw jātan*)의 위치에 관한 문제이다. 창 1장에서는 원시 바다 괴물을 가리키는 ‘탄닌’이 창조의 목록 카드에 “색인되어” 있듯이 언급된다.²⁰⁾ 독립적인 힘을 가지거나 위험한 존재로 전혀 인식되지 않고 피조 생물 가운데 하나로 나열된다. 시 104편에서는 같은 원시 바다 괴물로 지칭되는 리위야단이 언급된다. 리위야단도 여기에서 독립적인 힘을 가지거나 위험스런 존재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시 104편에서는 그것이 훨씬 자유로운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놀이의 대상이거나 바다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바다 생물로서 나타난다(시 104: 26).²¹⁾ 창 1장의 ‘탄닌’보다 ‘리위야단’에게 더 많은 자율성이 허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리위야단은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물 중의 하나로서 다채롭지만 조화로운 창조 세계의 모습을 구성하는 한 주체로서 묘사된다.

둘째로 관심을 갖게 되는 문제는 시 104편에서 묘사된 동물 세계 전체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관한 것이다. 창 1장에서는 창조의 순서와 그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의 그 정점에서 서 있고, 창조 후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간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인간 중심적이고 조직적이며 창조 세계가 잘 드러나고 있다.²²⁾ 그렇지만 시 104편에서는 자유로운 동물 세계가 인간 세계와 균등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 시편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어떤 주장도 발견할 수 없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로

20) J. Ebach, *Ursprung und Ziel: Erinnernte Zukunft und erhoffte Vergangenheit*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6), 30쪽.

21) 물론 시 104: 26은 보통 “당신께서 지으신 리위야단이 그[바다] 속에서 놀니다”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bô*가 의미하는 바가 리위야단 자체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구절은 “리위야단, 그것은 당신께서 그것과 함께 놀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로 번역된다.

22)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듯이 인간 창조의 목적과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의 위임 통치 명령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에 의해서 드러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이 창조의 ‘정점’이자 ‘클라이맥스’라고 단순하게 평가하는 것은 본문의 의도와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생활해 나가는 모든 피조물들 중의 하나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 고찰을 통해서 동물 세계에 대한 묘사가 본문의 주제를 드러내고 강조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시 104편에서 찬양 가운데 있는 창조 세계는 긍정적인 현실이며 조화로운 세상이다. 창조 세계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물과 인간이 각자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동물이나 인간을 막론하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존한다(욥 29-30절). 조화롭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는 동물이나 인간 중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조정이나 균림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삶으로 창조의 목적과 의미가 드러나는 곳이다. 그러므로 감사와 순종이 아니라 불협화음으로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위협하는 죄인들과 악인들은 창조 세계에서 그 자리를 갖지 않도록 소멸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요청된다(욥 35절).

3) 욥 38 - 41장

(1) 예비 고찰

욥 38 - 41장은 욥기 안에서 두 번에 걸쳐 나타난 하나님의 발언을 담고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발언은 욥기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볼 때 '사실'(Dass)과 '내용'(Was)의 차원에서 욥의 발언에 대한 하나의 응답(Antwort)으로 이해된다. "야훼가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서 야훼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적인 분리를 제거하시고, 욥 3장 이후 계속해서 욥이 제기하는 욥의 탄식(질문)에 반응한다. "야훼가 욥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언인가"는 욥의 답변과 함께 두 번에 걸쳐 행해진 하나님의 발언의 이중적인 구조에서 명백해진다.

욥의 발언(특히 욥 3장)과 하나님의 발언 사이의 내용적인 연결은 특히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에서 나타난다(욥 38: 2 - 39: 30). 두 발언 사이의 접촉점은 우선 그의 개인 운명을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대한 욥 탄식의 지평 확대에 근거한다. 자신의 존재의 시작과 관련된 저주의 바람들을 통해, 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시험 대상으로 삼고, 이로써 동시에 전 세계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문제 삼는다. 또한 욥은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서 악인의 손에 넘겨졌다고 탄식한다(욥 9장).

욥의 이러한 도발적인 ‘문제제기’에 야훼는 수많은 수사학적인 질문과 방어적인 진술로 대답한다. 이때 야훼는 욥과 비교해 볼 때 “정반대 방향의 길”을 택한다.²³⁾ 욥은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으로부터 세계의 일반성을 추론하는 반면, 야훼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그의 개인적인 삶을 유추하도록 하신다. 야훼는 욥에게 모든 인간적인 지식을 뛰어 넘는 창조 세계의 신비들을 눈앞에 보여줌으로써(욥 38: 4-38)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때 동물 세계에 대한 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의 후반부에는 화려하지만 불가사의한 면이 두드러져 나타나는 동물 세계가 그려진다. 여기서 다섯 쌍의 동물이 욥에게 설명된다. 이전의 연구에서 이른바 “동물 목록”(Tierkatalog)은 무엇보다도 자의적이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이 단락의 해석을 위한 올바른 접근이 항상 어렵게 느껴졌다. 대부분의 주석들은 개별적인 동물들에 대한 “발육 부진의 자연 과학적인 정보들”의 나열만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케엘(O. Keel)에 의해서 이 단락에 대한 철저한 주석이 소개되었다.²⁴⁾ 그의 해석에 있어서 핵심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는 고대 근동의 도상학(圖像學, Ikonographie)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발언에 나타나는 동물들(두 번째 하나님의 발언에 있는 *베혜뿔과 리위야*단을 포

23) 욥과 야훼의 논증 사이에 있는 상반된 움직임에 대하여 참조. P. Ritter-Müller, *Kennst du die Welt? Gottes Antwort an Ijob. Eine sprachwissenschaftliche und exegetische Studie zur ersten Gottesrede Ijob 38 und 39* (ATM 5), Münster/Hamburg/London, 2000, 280f쪽.

24) 참조. O. Keel, *Entgegnung an Ijob. Eine Deutung von Ijob 38-41 vor dem Hintergrund der zeitgenössischen Bildkunst* (FRLANT 121), Göttingen 1978. 케엘의 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호응을 얻으며 수용되었다: J. Ebach, *TRE* 15, 369f.; 동저자, *Streiten mit Gott. Hiob. Teil 2: Hiob 21-42* (Kleine Biblische Bibliothek), Neukirchen-Vluyn: Verlag Neukirchener 1996, 132-139; E.J. Waschke, Was ist der Mensch, dass du seiner gedenkst?, *ThLZ* 116 (1991) 808-10쪽; G. Fuchs, *Mythos und Hiobdichtung*, 210f.; Ch. Maier/S. Schroer, Das Buch Ijob. Anfragen an das Buch vom leidenden Gerechten, in: Schottröf, L./Wacker, M.-Th. (Hg.), *Kompendium. Feministische Bibelauslegung*, Gütersloh² 1999, 199ff쪽. 이러한 해석에 대한 반론도 참조하라: M. Oeming, “Kannst du der Löwin ihren Raub zu jagen geben?” (Hi 38,39). Das Motiv des “Herrn der Tiere”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Theologie der Gottesreden Hi 38-42, in: M. Augustin/K.-D. Schunck (Hgg.), *“Dort ziehen Schiffe dahin”*. Collected Communications to the XIV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the Study of the Old Testament, Paris 1992 (BEAT 28), Frankfurt a.M. u.a. 1992, 147-163쪽; 동 저자, *Die Begegnung mit Gott*, 113f쪽; H. Strauß, *Hiob, BK* 16/2, Neukirchen-Vluyn: Verlag Neukirchener 2000, 353f쪽.

함하여)의 공통점과 관련성을 규명했다.

켈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세계의 수많은 미술 작품의 분석을 통해서 무엇보다 10가지 동물(사자와 까마귀, 산염소와 암사슴, 들나귀와 야생 황소, 타조와 전쟁 말, 매와 독수리)의 공통점이 그것들의 지혜나 위험성에 있지 않고, 왕의 사냥동물로서의 특성에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때 여기에 언급된 동물들은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필요에 순응하지 않고 혼돈의 특성들을 보여주는 인간에 대한 반대 세계의 대표자로서 기능을 한다. 이 뿐 아니라 그는 동물들이 회화적인 묘사 속에서 “동물의 주” 또는 “황아의 주”의 모티브와 함께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에게 “혐오스럽게” 보이나, 하나님의 배려와 질서에 상응하는 다채롭고 불가사의한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신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두 번째 발언의 후반부(욥 40: 15 - 41: 34)에서는 “사람에게 적대적”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신화-실제적인” 두 동물(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한 묘사가 이어진다. 이러한 동물 세계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야훼는 자신이 운행하는 창조 세계의 오묘한 질서와 악한 세력을 제압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강조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발언은 친구들과는 달리 행위 회복 관계에서 드러나는 이 세계의 비합리성을 고수한 욥에게 그 정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운명에 이 세계의 상태를 귀속시켜버린 그의 “자기(인간) - 중심적인 세계관”(ego [anthropo] - zentrische Weltsicht)에는 비판적이며, 중국에는 욥의 “세계관의 전환”을 촉발시킨다(욥 42: 6).

(2) 동물의 신학적 의의에 대한 고찰

욥 38 - 41장의 하나님의 발언에 나타난 동물 세계의 의미도 이중적으로 고찰된다. 먼저 첫 번째 발언의 후반부(욥 38: 39 - 39: 30)에 나타난 동물의 신학적 의의에 관한 질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발언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필요에 순응하지 않고 혼돈의 특성들을 보여주는 인간에 대한 ‘반대 세계’의 대표자로서 기능을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발언의 후반부(욥 40: 15 - 41: 34)에 나타난 두 동물(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인간의 적대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악과 혼돈의

세력을 대표한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발언이 특별히 욕 3장의 욕의 질문과 탄식에 함축된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 대해, 인간적인 관심과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각각 그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원하시고 유지된 세계의 요소들을 지적함으로써 응답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발언은 무엇보다 욕 9장에서 제기한 욕의 비난, 즉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악인이 지배하도록 허용 하셔서 결국 하나님 자신이 악인으로서 지배하신다는 비난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본보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발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악인들, 혼돈의 세력들을 방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인간에게 혐오스러운 것을 주제로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은 다채롭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모순적인 세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인간에게 적대적인 것을 주제로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발언은 그분이, 오직 그분만이 세계가 혼돈의 세력에 귀속되지 않도록 돌보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두 번의 하나님의 발언은 동시에 친구들의 발언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세계가 친구들이 대변하는 도그마적인 질서에 간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 과 인과응보의 교리로는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창조의 세계이다. 악령과 함께 버려진 땅으로 여겨지는 곳에 거주하는 동물들도 보호하시며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모습을 통해, 또한 혼돈의 세력들을 대표하는 <베헤못>과 <리워야단>를 제어하시는 모습을 통해, 혼돈처럼 보이는 세계에도 질서정연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이른바 '정통 신학'도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며 고난의 현실을 이해하는 심판자와 대변자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에서 동물 세계는 창조 세계의 질서와 창조주의 배려와 섭리를 보여주는 척도와 예증이 된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관계 밖에 있는 동물들(5쌍의 동물들, 38: 39 - 39: 30)을 사례로 보여주시며 욕의 자기(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깨뜨리셨고, 혼돈의 세력의 상징인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예를 들어 창조 세계는 친구들이 변호하고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경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빈틈없는 완전한 세계가 아

니라,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혼돈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신비로운 세계임을 보이셨다. 그렇지만 <베혜못>이나 <리위야단>이 하나님만이 제어하실 수 있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신다.

3. 나가는 말: 종합과 평가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창조' 주제와 관련한 동물의 신학적 의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창 1장을 통해서 나타난 동물 세계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는 창조신에 대한 대항 세력으로 인식되던 <탄닌>을 통해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과 유일성이 분명하게 강조된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원시 바다 괴물 <탄닌>이 아니라, 철저히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피조물 중 하나일 뿐이다. 또한 '동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위임 명령이 창조 사역의 정점으로 나타나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 되며, 이 위임 명령의 수행 정도가 인간과 창조 세계에 대한 판단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 마지막으로 '풀'을 동물의 먹을거리로 허락하신 사실은 사 11장의 메시아를 통해 이룩될 평화의 나라의 모습에서 그려지는 모습과 상응한다. 창 1장에서 보여주는 동물에 대한 먹을거리 규정이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피 흘림이 없는 창조 세계에 대한 원리와 원칙을 제공해 준다.

둘째로, 시 104편에서는 두 가지 점에서 동물의 신학적 의의를 고찰할 수 있다. 먼저 창 1장에서와 같이 본래 원시 바다 괴물을 가리키던 <리위야단>이 독립적인 힘을 가지거나 위협한 존재로 전혀 인식되지 않고, 피조 생물 가운데 하나로 나열된다. 그러나 시 104편에서는 그것이 훨씬 자유로운 형태로서 묘사되어 놀이의 대상이거나 바다에서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바다 생물로서 나타난다. 다음으로 시 104편에서 묘사된 동물 세계는 인간 세계와 균등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 시편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어떤 주장도 발견되지 않는다. 동물과 인간이 각자 자신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한 모습이 긍정적인 현실과 조화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사실을 통해 동물 세계의 독자성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로, 욥 38 - 41장에서는 두 번에 걸쳐 나타나는 하나님의 답변이

모두 동물 세계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주도된다.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에서는 다섯 쌍의 동물의 예를 통해 자신의 사례를 중심으로 창조 세계 전체를 평가하는 욕의 질문과 탄식에 대해 반박하신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의 이해 관계를 넘어서 운행되는 다채롭고 모순적으로까지 보이는 세계라는 사실이 강조된다. 두 번째 답변에서는 한 쌍의 동물, <베혜뿔>과 <리워야단>의 예를 통해 친구들의 잘못된 태도와 판단을 비판하신다. 창조 세계는 친구들의 주장처럼 인간의 경험 속에서 확인 가능한 완전한 세계가 아니라, 사람의 이해와 판단을 넘어서는 고난과 혼돈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신비로운 세계임을 보여 주신다. 이로써 하나님의 계획(<에차>)이 보이지 않는다는 욕의 탄식이 나름대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위에서 고찰한 연구를 토대로 동물의 신학적 의의에 대한 종합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구약 성서에서 대표적으로 창조 세계를 다루고 있는 위의 세 본문은 '창조'가 '세계 창조'나 '우주의 시작'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창조 세계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통치'라는 주제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우주의 시작이나 기원 등의 발생학적이고 기원론적인 질문의 차원을 넘어 오늘 이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더 이상 동물이나 동물 세계는 인간의 존재를 위한 수단이나 장식품이 아니라, 인간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가 그렇지 못하는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작용한다. 나름대로의 독자적이며,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조화롭고 다채로운 창조 세계를 만드는 필수적인 존재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세 본문에서 모두 원시 바다 괴물로 지칭되는 <탄닌>이나 <리워야단>이 등장하고 있으며, 인간의 활동성이 이 동물들의 자율성에 반비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창 1장에서 인간의 모습이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왕적 존재로 나타나지만, 시 104편에서는 동물들과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하는 창조 세계의 일원으로 파악된다. 욕 38 - 41장에서는 인간이 신비롭고 자유로울 뿐 아니라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동물 세계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답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아야 하며, 여러모로 한계성을 가진 탄식하는 존재로서 나타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본문 모두에서 일관되게 증언하

고 있는 바는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 세계 전체를 통제하시고, 깊고 오묘한 계획 가운데 창조 세계를 지탱하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4. 참고문헌

- 강 사문, 「구약의 자연이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 강 성열, 「고대근동세계와 이스라엘 종교」 (서울: 한들, 2003).
- , 「구약성서와 생태신앙」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5).
- 김 균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김 선자, 「중국 변형신화의 세계(불멸과 필멸의 변주)」 (서울: 범우사, 2001).
- 김 성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시편 104편,” 「그말씀」 226호(2008), 95-102쪽.
- 김 탄/김 동광(웁김), 「신비한 동물의 세계」 (서울: 크레용하우스, 2000).
- 노 세영, “창조와 구속의 관계성에 대한 이해,” 「구약논단」 11집(2001), 7-25쪽.
- 박 만, 「현대 신학 이야기」 (서울: 살림, 2004).
- 새뮤얼 노아 크레이머,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박 성식 웁김), (서울: 가람기획, 2000).
- 에슬러 알렌, 「시편 101-150 (WBC 성경주석)」 (서울: 솔로몬, 2001).
- 왕 대일, 「구약신학」 (서울: 도서출판성서학연구소, 2002).
- 정 중호, “생태계 위기에 대응하는 제사장 신학,” 「구약논단」 3집(1997), 108-128쪽.
- 제임스 L. 메이스, 「시편」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최 재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서울: 효형출판, 2001).
- 피지올로구스, 「기독교 동물 상징사전: 피조물에 드러난 창조주의 의지를 자연의 상징으로 풀이한 기독교 도상사전」 (노 성두 웁김), (서울:知와사랑, 1999).
- 하 경택, “음 발언의 창조 모티브 고찰,” 「구약논단」 18집(2005), 105-127쪽.
- , “음 탄식과 하나님 발언의 관계성 연구,” 「구약논단」 22집(2006), 98-114쪽.
- 호남신학대학교(엮음), 「생태학과 기독교 신학의 미래」 (서울: 한들출판사, 1999).
- Bartelmus, R., “Die Tierwelt in der Bibel: exegetische Beobachtungen zu einem Teilaspekt der Diskussion um eine Theologie der Natur,” *BN* 37 (1987), 11-37쪽.
- Behrmann, A., *Das Nilpferd in der Vorstellungswelt der Alten Ägypter*, (Frankfurt a. M.: Peter Lang, 1986).
- Boardman, J., “‘Very Like a Whale’ - Classical Sea Monsters,” Farkas, A. E./ Harper, P. O./ Harrison, E. B.(eds.), *Monsters and Demons in the Ancient and Medieval Worlds*, FS E. Porada, (Mainz: von Zabern, 1987), 73-84쪽.
- Cathcart, K. J., “The trees, the beasts and the birds: fables, parables and allegories in the Old Testament,” J. Day u.a.(eds.), *Wisdom in ancient Israel*, FS I. A. Emert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212-221쪽.
- Cornelius, I., “Paradise Motifs in the ‘Eschatology’ of the Minor Prophets and the Iconography of the Ancient Near East. The Concepts of Fertility, Water, Trees and ‘Tierfrieden’ and Gen 2-3,” *JNWSL* 14 (1988), 41-83쪽.
- Dumbrell, W. J., 「새 언약과 새 창조」 (장 세훈 웁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 Feliks, Y., “Animals of the Bible and Talmud,” *EJ* 3 (1973), 7-19쪽.
- Firmage, E., Art. “Zoology,” *The Anchor Bible Dictionary* VI (1992), 1109-1167쪽.

- Fischer, H. G., "The Ancient Egyptian Attitude Towards the Monstrous," A. E. Farkas/P. O. Harper/E. B. Harrison(eds.), *Monsters and Demons in the Ancient and Medieval Worlds, FS E. Porada*, (Mainz: von Zabern, 1987), 13-26쪽.
- Fröhlich, I., "The Symbolic Language of the Animal Apocalypse of Enoch," *RdQ* 14 (1990), 629-636쪽.
- Grapow, H., *Die bildlichen Ausdrücke des Ägyptischen. Vom Denken und Dichten einer altorientalischen Sprache*,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3).
- Hornung, E., "Göttliche Tiere," ders., *Geist der Pharaonenzeit*, (Düsseldorf: Albatros, 2005), 154-167쪽.
- Hornung, E., "Tiergestaltige Götter der Alten Ägypter," M. Svilar(Hg.), *Mensch und Tier*, (Bern/Frankfurt/New York: Lang, 1985), 11-31쪽.
- Jenni, E., "Zur Semantik der hebräischen Personen-, Tier- und Dingvergleiche," *ZAH* 3(1990), 133-166쪽.
- Keel, O., "Allgegenwärtige Tiere. Einige Weisen ihrer Wahrnehmung in der hebräischen Bibel," B. Janowski(Hg.), *Gefährten und Feinde des Menschen. Das Tier in der Lebenswelt des alten Isra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93), 155-93쪽.
- _____, *Die Welt der altorientalischen Bildsymbolik und das Alte Testament. Am Beispiel der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6).
- _____, *Jahves Entgegnung an Ijob. Eine Deutung von Ijob 38-41 vor dem Hintergrund der zeitgenössischen Bildkunst (FRLANT 121)*,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8).
- Kraus, H.-J., *Psalmen 60-150 (BK 15/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8).
- Landmann, M., "Der Tierfriede," E. Fromm(Hg.), *Der Friede, Idee und Verwirklichung*, (Heidelberg: Schneider, 1961), 81-98쪽.
- Miller, J. E., "Structure and Meaning of the Animal Discourse in the Theophany of Job (38, 39 - 39, 30)," *ZAW* 103 (1991), 418-421쪽.
- Molinski, W., "Die Stellung der Tiere in der Schöpfungsordnung," *NOrd* 49 (1995), 437-452쪽.
- Pangritz, W., *Das Tier in der Bibel*, (München u.a.: Reinhardt, 1963).
- Ramsey, G. W., "Is Name-Giving an Act of Domination in Gen 2:23 and Elsewhere?" *CBQ* 50 (1988), 24-35쪽.
- Richter, H., "Die Naturweisheit des Alten Testaments im Buches Hiob," *ZAW* 70 (1985), 1-20쪽.
- Ritter-Müller, P., *Kennst du die Welt? Gottes Antwort an Ijob. Eine sprachwissenschaftliche und exegetische Studie zur ersten Gottesrede Ijob 38 und 39 (ATM 5)*, (Münster u.a.: Lit, 2000).
- Ruiten, van, J. T. A. G. M., "The Intertextual Relationship between Isaiah 65, 25 and Isaiah 11, 6-9," F. G. Martínez/A. Hilhorst/C. J. Labuschagne, *The Scriptures and the Scrolls, FS A. S. van der Woude*, (Leiden u.a.: Brill, 1992), 31-42쪽.

- Ruprecht, E., "Das Nilpferd im Hiobbuch. Beobachtungen zu der sogenannten Zweiten Gottesrede," *VT* 21 (1971), 209-231쪽.
- Schwab, E., "Die Tierbilder und Tiervergleiche des Alten Testaments. Material und Problemanzeigen," *BN* 59 (1991), 37-43쪽.
- Spieckermann, H., *Heilsgegenwart. Eine Theologie des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9).
- Steck, O. H., "Gott - Mensch - Tier. Hermeneutische Überlegungen und Predigt zu Psalm 8," H. F. Geisser/M. Moster(Hg.), *Wirkungen hermeneutischer Theologie, FS G. Ebeling*,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1983), 51-64쪽.
- Stein, G., "Das Tier in der Bibel. Der jüdische Mensch und sein Verhältnis zum Tier," *Jud* 36 (1980), 14-26, 57-72쪽.
- Uehlinger, C., "Drachen und Drachenkämpfe im Alten Vorderen Orient und in der Bibel," B. Schmelz/R. Vossen(Hg.), *Auf Drachenspuren. Ein Buch zum Drachensprojekt des Hamburgischen Museums für Völkerkunde*, (Bonn: Holo-Verl., 1995), 55-101쪽.
- _____, "Leviathan und die Schiffe in Ps 104, 25-26," *Bib*. 71 (1990), 499-526쪽.
- Velde, H., "A few Remarks upon the Religious Significance of Animals in Ancient Egypt," *Numen* 27 (1980), 76-83쪽.
- Westermann, C. *Ausgewählte Psalm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4).
- Zenger, E./F.-L. *Hossfeld, Psalmen 51-100* (HThKAT), (Freiburg u.a.: Herder, 2000).

검색어

구약신학 • 생태계신학 • 창조 • 창조질서 • 도상학
종말 • 하나님의 통치 • 동물의 세계 • 상징성

투고일: 2008년 10월 10일

심사일: 2008년 11월 7일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15일

Theological Significance of Animals for the Theme 'Creation and Eschatology'

Kyung-Taek Ha, T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eoul Jangs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texts relating to the theme of creation and eschatology (e.g. Gen 1; Ps 104; Job 38-41; Isa 11) and to find out the theological significances of animals for the theme 'creation and eschatology'.

The significances of animals in Gen 1 can be summarized in three points. Firstly, through *tannin* the sovereignty and absoluteness of God as the Creator is emphasized. Secondly, ruling over the animals is the purpose of the human creation. The achievement of this commandment would function as to judge the human and the world created. Thirdly, that only grasses are allowed to the animals as food offers the principle and the fundamental rule for the creation world, which should work without shedding of blood just as manifested in Is 11: 6-9.

In Ps 104 the theological significances of animals are observed in two points. First, *liwātān*, which is identified as sea monster in the Ancient Near East, appears as a sea creature that is simply living in the sea

with no threatening nature. It is not a dangerous mythical creature at all in Ps 104. Second, the animal world is described equally with the human world. Animals have their own living sphere just as men have their own. The independence of the animal world is noted as the animals are living their own lives sincerely in harmony with reality of the world.

In Job 38-41 God's answers are mentioning about the animal world. In the first answer, describing the five pairs of the animal, it is emphasized that the creation world is varicolored and seems even contradictory to all the interests of the human beings. In the second answer a pair of the animal, *liwātān* and *behemoth*, are referred. Through these examples God shows us that the creation world contains elements of suffering and chaos, and is the mysterious world which is beyond the understanding and judgement of the human beings.

In the above examined texts concerning the creation world, it is clear that the theme 'creation' means not merely the creation of the world or the beginning of the universe but the reign of God. The animals or the animal world are not no longer instruments or accessories for the existence of human beings. Rather, by examining them, we could learn whether the goal of human creation is achieved or not. The animals have their own meaning in the creation world of God and are essential to the harmonized and varicolored world.

Keywords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 Ecological theology • Creation
Creational World • Order of the Creation • Iconography • Eschatology
Reign of God • Animal World • Symbolic Meaning